

김정일 사망

“대규모 탈북 대비 임시수용소 계획”

北 급변사태 대비 계획은

정부 ‘부흥계획’ 군 ‘개념계획’ 5029 가동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부와 군의 비상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흥계획(가칭)’이라는 이름의 비상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군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개념계획 5029’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19일 부흥계획과 관련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통일부 장관이 수장을 맡는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고 국정원

과 국가안전전략연구소 등 정부 내 40여명이 관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09년 6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 정부 출범 직후 통폐합됐던 정책기획과를 통일정책실 안에 다시 설치해 북한 급변사태 대비 업무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으로 ▲최고권력의 유고 ▲권력투쟁·쿠데타 ▲주변소요·봉기 등을 꼽고 있는데 이번엔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비상계획을 재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부흥계획이 대량난민 발생시의 대

응 방안과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 보호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적 계획이라면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사태의 운용계획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 행동계획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대규모 탈북 난민이 발생하면 군 당국은 임시결점지(1단계), 군 난민보호소 이송(2단계), 정부 난민수용소 이송(3단계) 등 3단계로 난민을 수용, 보호하게 된다. 이와 관련,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주민의 급증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북한 주민의 대량 이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의 지적에 대해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별히 관련 주변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태세를 강화하면서도 위치론을 상황 조정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일은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北 특이동향 없다더니...” 군, 미사일 발사 은폐 의혹

북한이 지난 19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발표해 고의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이 발표된 이후 경계태세 2급 발령 사실을 밝히면서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몇 차례나 언론에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군당국의 북한군 동향 발표에 앞서 오전 8시30분께 KN-02 지대대포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 사실은 오후 6시57분 일본의 한 방송을 통해 보도됐고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 군은 이런 보도에도 북한

군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대남 도발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상능 개량 이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언론에 일일이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불안감 조성과 있고...”라고 얼버무렸다. 군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마지못해 확인하는 것을 관례로 여기고 있다.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취득한 북한 정보를 ‘보안’이란 이

유로 군 스스로 독점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매머드급 사태 앞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숨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군 안팎의 지적이다. 한 국방 관련 전문가는 “북한 일선 군부대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수도 있지만, 시점상 김 위원장 사망 후 이들이 지난 상황에서 북측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북한군의 특이 동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방부가 너무 안일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에도 행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공식 발표된 19일 위원장을 찬양하는 평양시내 표시석 앞에 비탄에 잠긴 북한 주민들의 애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정보작전 방호태세 한단계 격상

군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같은 비(非)군사적 도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정보작전 방호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한 단계 격상했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례회의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지난

19일 오후 2시를 기해 인포콘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군사도발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해킹과 디도스(DDoS) 등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합참의장이 발령하는 인

포콘은 5(평시 준비태세), 4(증가된 군사경계), 3(항상된 준비태세), 2(강화된 준비태세), 1(최상의 준비태세) 등 5단계로 구분돼 단계적으로 조치된다. 평시에는 ‘5’ 수준으로 유지된다. 인포콘이 발령되면 육·해·공군본부, 작전사령부, 사단급 예하부대는 운용 중인 정보체계의 이상 상황을 합참과 국군통신사령부에 즉각 보고하고 단계별 방호태세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합뉴스

“식량지원·북미대화 결정된 것 없다”

美 국무부 대변인 “北 애도 존중”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대북 식량지원과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 대해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놀랜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북미대화 등의 연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오늘 이 문제가 정부 내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결정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5, 1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협의의 언급, “베이징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논의 과정이었다”면서 “합의를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식량지원 협의에

참가한 로버트 킹 대북인권 특사와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베이징에서 좋은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놀랜드 대변인은 특히 “북한은 국가 애도기간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이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북한이 전환기를 맞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22일 전후로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제3차 북미고위급 대화에 갑작스러운 김 위원장 사망 소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식량지원 문제에 베이징 협의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애도기간 등을 감안해 지원 물량과 방식 등 구체적인 결정은 추후에 내려진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놀랜드 대변인은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조문 단 파견 및 조의 표명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외국 대표단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조의 표명 등)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관련 회의가 있을 것임으로 지켜봐 달라”고 밝힌 조의 표명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미 정부가 ‘독재자’로 규정하고 있는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조의 표명이 적절하지에 대한 질문에도 “무엇이 적절한지,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 ‘김정은 체제’ 지지, 美 간접 인정, 러·일 전략적 협력

주변 4강 한반도 안정 관리 모색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외교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동북아 정세의 ‘뇌관’으로 떠오른 형국이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을 겨냥해 대북 대응기조를 ‘전략적 관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특히 내년 대

선을 앞두고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해 야 할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내부체제가 안정화되는게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9일 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transition)’을 원한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개선된 관계를 희망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다”라

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국이 ‘조의표명’을 검토 중인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를 두고 김정은 후계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힘들지만 미국도 현 국면에서 김정은 체제의 승계를 간접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은 새로운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며 북한내

부의 체제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 당·정·군 지도부가 전날 조전을 보내며 김 부위원장의 영도 체제를 인정할 것도 이런 차원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상황 안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넘어 북한에 대한 큰 틀의 중장기적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도 미·중의 이 같은 전략적 협력흐름에 가세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온 러시아는 19일 북한에 조전을 보내고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나갔다. 일본도 19일 후지무라오 사루(藤村修) 관방장관을 통해 서울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목포석원(7층빌딩) 대1018m2, 22866m2, 감정가 27억2천, 최저가 15억9천. 목포죽동(목포구청) 대985m2, 23177m2, 감정가 41억5천, 최저가 23억2천. 수기동 [12층관공호텔] 대823m2, 217588m2, 감정가 74억9천, 최저가 29억3천. 경복구미[골프연습장] 대51503m2, 237399m2, 감정가 112억6천, 최저가 38억. 풍향동(근린시설) 대536m2, 215893m2, 감정가 12억6천, 최저가 4억5천. 목포달동(물류터민) 대32840m2, 18979m2, 감정가 187억6천, 최저가 67억2천. 마곡동(5층빌딩) 대775m2, 21700m2, 감정가 15억, 최저가 10억5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학동 [5층모델] ▷대지 88평 ▷건물 233평 ▷감정가 5억9천 ▷매매가 2억8천7백(협의후결정). 전북부인 ▷대지 1491평 ▷건물 562평 ▷감정가 11억7천 ▷매매가 7억2천(협의후결정). 광주죽동 공장 ▷대지 (지식경제부 임대) ▷건물679평 ▷감정가 15억7천 ▷매매가 7억5천 (협의후결정). 해남 명골관도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 83억 ▷매매가 32억 (협의후결정). 용평동(하이스트팩스)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경북경산(5층모델) ▷대지 107평 ▷건물 409평 ▷감정가 12억4천 ▷매매가 7억5천(협의후결정). 곡성석곡 공장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감정가 44억4천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전북완주 봉동 공장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0억 분할가능(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문 김태호전문이사 011-684-3886 속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정현호이사 010-5879-0005. 아파트/빌라 박미란 팀장 010-9900-3002 주택/개개별 양준혁팀장 010-3171-6536 근린주택 김중현이사 010-8227-7759. 병원,교회,사옥,모델,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 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앞(지하)호프,분식60평,원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계림동 이마트 1층 1칸. 전체매매가 2억5천3백대출+보증금 공제후 실인수가 5천3백만원 상당 010-6654-6888.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열 유지빌딩 501 투자 및 사업용 토지.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부근 4,260㎡. 제2종일반주거역, 35m계도도로 접함.매매가 3.3㎡당 110만원.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앞, 1,117㎡. 제2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3㎡당 300만원. ■광산구 소촌동 공무원교육원 옆, 6,600㎡. 제1종일반주거지역, 포경도로접함.매매가 3.3㎡당, 100만원. ■광산구 용동 지하철 차량기지 옆. 제1종일반주거지역.629㎡, 3.3㎡당 95만원. ■(금매)서구 화정동 터미널 뒷편,868㎡. 일반산업지역, 3.3㎡당 280만원.공시지가는 3.3㎡당,325만원. ■서구 치평동(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한국은행 뒷편 990㎡ 3.3㎡당, 590만원. ■서구 세하동 동화마을 부근,전, 2차선 도로접함. 1,035㎡(313평) (도로 77평포함) 매매가 4억 2000만원. 식당, 사무실,기타,적합. ■동구 소래동 대아아파트 부근,잠중지,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거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전문식당지, (보리밭, 흑염소,순두부등) 010-3616-8698, 062-233-2222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매매). 토지(매매, 상무지구). 토지(매매, 상무지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열 유지빌딩 501. ■토지600평건물4,000평(매가 210억) 보증금100억/월세5,000만원. ■토지950평 건물700평 (매가110억)보증금40억/월세3,000만원. ■토지200평 건물725평(매매가 32억) 보증금7억 월세 약 1,700만원. ■토지164평 건물약600평(매매가 30억) 보증금0억/월세1,700만원. 토 지(매매, 상무지구)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차지 등) 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출가능(상당양잠) 833㎡(252평)-평당1,300만원 (상무지구) (번화가 사거리코너) 1,980㎡(600평)-평당1,200만원 (상무지구) (유출가능) 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 일(시청앞) (회사사옥, 오피스텔 등 적함) ■중립동 (생산지옥 운암~하남 간)대문면4,470㎡(약1,352평) - 평당330만원 (예약장 적함)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자명 1층)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상무지구 빌딩 매매.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상무지구 렌트피아 사거리. ■대지면적: 980평 -매매금액: 45억원 -유자금액: 20억원포함 한의원/치과전문의병원등.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 /월 2200만원 -유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증금3천만원/월 650만 -유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렌트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영일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들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동신동2번대 대인동 상가전년건)